

제1부 역

1장 역의 변천과 개념

1. 역의 변천

역(易)은 처음부터 운명의 도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 역은 단순한 달력(曆)의 의미로부터 기록(歷)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정보가 쌓이며 축적된 방대한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易)의 변천 과정은 중국 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이다.

중국의 기원은 오천 년 전 반고(盤古) 신화로부터 시작된다(盤古開天地). 시간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밝음과 어둠만 존재하는 이분법적 개념이었다. 환하면 먹고 어두우면 자는 즉, 먹고사는 일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몇 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은 천지인의 다양한 방면에서 방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드디어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천간지지(天干地支) 또는 숫자와 도형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달력(曆)의 의미를 담은 기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식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달력(曆)의 의미를 초월하여, 분야별 역사(歷)를 확립하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행태적 관점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여기에 점술 부분만 따로 떼어 인간사의 변화(易)를 운명과 연관시켜 간명(看命)하면서부터 인문역학(人文易學)이 시작된 것이다.

▷역(易)의 개념 변천 = 曆(달력) ⇒ 歷(역사) ⇒ 易(역/일월변화)

2. 역의 개념

역(易)의 사전적 의미는 ‘바뀌다’이다. 이는 태양(日)과 달(月)의 합성어적 의미에 앞서 삼라만상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객체로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태양계의 영향을 받는 객체는 어느 특정 사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천지인(天地人)의 가시적(可視的) 또는 비가시적(非可視的) 영역의 모든 사물을 일컫는다. 따라서 다양한 객체들이 시공간에 따라 받는 우주 기운의 바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천지일월(天地日月)의 기운을 받는 모든 객체의 변화현상을 역(易)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현상을 천성적이고 행태적 관점에서 학술적 이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역학(易學)이라고 하며, 경험적이고 실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술기(術技)를 역술(易術)이라고 한다.

역(易)을 대별하면 천지인(天地人)의 바뀔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이론적 도출행위에 따라 천문(天文)·지리(地理)·인문(人文)역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문역학(天文易學)은 별자리를 비롯한 천체운행의 변화현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지리역학(地理易學)은 땅과 관련한 지기(地氣)의 변화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인문역학(人文易學)은 사람의 일생변화를 파악하는 학술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천지인의 바뀔 현상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형성하지만 그 귀결점은 결국 인간과 관련한 모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천지인의 역학은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가운데, 우리가 역학(易學)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사람의 변화현상만을 파악하는 학제적(學制的) 의미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역(易)은 천지인의 변화현상을 말하는 반면, 역학(易學)은 그러한 변화현상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오늘날 역학(易學)의 의미는 천지인(天地人)과 관련한 변화의

관점에서 이론 또는 직관을 결부시켜 인간의 운명적 결과를 도출하려는 지식 및 행위의 총체를 일컫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의 분류>

역	역학	구분
易 (日月) 변화현상	천문 역학	자미두수(紫微斗數), 태을수(太乙數), 철판신수(鐵板神數)
	지리 역학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 방위학(方位學), 기문둔갑(奇門遁甲), 가상학(家相學)
	인문 역학	초씨역림(焦氏易林), 매화역수(梅花易數), 주역점(周易占), 육효점(六爻占), 수상(手相) 육임점(六壬占), 명리학(命理學), 족상(足相) 구성학(九星學), 인상학(人相學), 성명학(姓名學), 파자점(破字占), 월령도(月令圖), 점, 굿, 부적

3. 서양의 역

서양의 역(易)이라 일컬어지는 점성술이 시작되었던 것은 기원전 3천년의 수메르 문명권으로 추측한다. 서양에서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일년에 한 번씩 공전하는 궤도를 황도(黃道)라고 명명하고, 이를 다시 열두 구역으로 나누어 황도 12궁(宮)을 만들었다.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십이지지와 일 년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움직임에 따른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명이나 국가의 장래를 점치게 되었다. 이러한 서양의 점성술이 인도를 경유하여 중국에 전래된 것은 8세기 당나라 시대로 보고 있다.

<서양의 점성술 비교표>

황도12궁과 별자리	영문명	생일(양)	특성
백양궁(白羊宮) 양	Aries	3.21 ~ 4.20	윤리, 정의, 성급, 독단
금우궁(金牛宮) 황소	Taurus	4.21 ~ 5.20	평화지향, 신중, 정신력
쌍자궁(雙子宮) 쌍둥이	Gemini	5.21 ~ 6.21	화술, 자유분방, 기지
거해궁(巨蟹宮) 게	Cancer	6.21 ~ 7.22	자기보호본능, 생활력
사자궁(獅子宮) 사자	Leo	7.23 ~ 8.22	사치, 참견, 공명심
처녀궁(處女宮) 처녀	Virgo	8.23 ~ 9.22	희생봉사, 항상성, 순수
천칭궁(天秤宮) 저울	Libra	9.23 ~ 10.21	균형, 이성적, 공정성
천갈궁(天蠍宮) 전갈	Scorpius	10.22 ~ 11.21	직감, 비밀, 위엄, 신중
인마궁(人馬宮) 궁수	Sagittarius	11.22 ~ 12.21	높은이상, 순진, 편협
마갈궁(磨羯宮) 염소	Capricornus	12.22 ~ 1.19	양면성, 목적추구, 인내
보병궁(寶瓶宮) 물병	Aquarius	1.20 ~ 2.18	리더십, 화술, 창의적
쌍어궁(雙魚宮) 물고기	Pieces	2.19 ~ 3.20	포용력, 직관, 음전

4. 역학연표

시대및학자		저서 및 내용
전설시대		반고(盤古)신화 (BC5,000)
三 皇 五 帝	복희	(伏羲BC3512), 용마출현, 하도(河圖), 팔괘(八卦)
	하우	(夏禹), 거북출현, 낙서(洛書), 그림과 숫자 마방진魔方陣(15x24절기=360일)
	대요	(大撓), 천간지지(天干地支) 고안, (黃帝임금 때) 曆(달력) ⇒ 歷(역사) ⇒ 易(역) 운명론으로 변천
殷	기자	(箕子), 오행(五行) 사용
周	문왕	(文王BC1050), 하도와 낙서에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운명분석 을 가미, 문왕주역=상수역(象數易)
戰 國 時 代	귀곡자	(鬼谷子), 초(楚), 『귀곡자찬(鬼谷子撰)』 일주와 연주를 분리하여 간명
	낙록자	(洛瑀子367~), 초(楚), 『소식부(消息賦)』, 사주체계 처음 사용
	공자	(孔子BC551~479), 노(魯), 공자주역=의리역(義理易)
	추연	(鄒衍), 제(齊), 음양(陰陽)이론의 체계구축
秦	진시황	(始皇帝), 중국(中國) 국호 개념 성립, china영문기원
漢	회남자	(淮南子), 십이운성 왕상휴수사(旺相休囚死)의 기원이 되는 장로생 수사(壯老生囚死) 적용, 회남자 지형훈(地形訓)에 기록, 양순음역 사용하지 않음
	동중서	(董仲舒), 음양이론의 체계완성
	왕충	(王充), 십이지지에 띠 개념 도입
唐	이허중	(李虛中 762~813),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연주(록명신), 오행 의 왕상휴수와 납음오행, 태월일시 적용
	한유	(韓愈), 이허중의 비문에 사주(四柱) 용어 입력
	원천강	(袁天綱),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 생연월이시 를 사주 간지(干支)로 대체하여 명운을 논하는 이론체계, 12운성의 양순음역을 사용하지 않음

宋	서자평	(徐子平/徐大升922~), 『연해자평(淵海子平)』, 일간(日干)중심분석,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 효시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 일주를 근거로 육사(六事, 六親, 十神을 말함)를 나누어 운명을 논함, 순중공망, 사대공망, 12운성 양순음역 적용
明	유백온	(劉伯溫/劉基1311~1375), 『적천수(滴天髓)』, 명리학의 바이블, 형상(形象), 체용(體用)원리, 부귀빈천(富貴貧賤), 성정(性情), 질병(疾病), 출신(出身), 지위(地位), 여명(女命), 소아(小兒)까지 정리해설
	만민영	(萬民英/育吾1522~1578), 『삼명통회(三命通會)』12권, 신살 위주의 종합백과사전, 12신살론체계, 12운성 양순음역 적용, 십간분배천문, 십이지분배지리
	장남	(張楠/神峰1609~), 『신봉통고명리정종(神峰通考命理正宗)』, 동정설(動靜說), 개두설(蓋頭說), 병약설(病藥說), 전도론(顛倒論), 입고설(入庫說) 주장 (후에 국내의 왕자입고/암신개고설에 영향)
	여춘대	(余春台), 『난강망(欄江綱)』, 조후법(調候法), 십간론(十干論), 일간과 월지를 대조하여 조후로 용신법(真神眞神) 제시
靑	진소암	(陳素庵1658~), 『명리약언(命理約言)』, 공망 (재관인식귀財官印食貴)/부귀길수국富貴吉壽局/빈천흉요국貧賤凶夭局에서 락공 설명, 『명리약언』에서 12운성무용론주장(陰陽同生同死說), 『적천수』의 해설서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
	매각성	(梅穀成1681~1763),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 공망을 고허신(孤虛神)의 고독성으로 표현, 태양력과 지남철 교정, 신살 500개 소개
	심효첨	(沈孝瞻1739~), 『자평진전(子平眞詮)』, 명리기본서, 격국론체계화, 격국용신이론상신(相神)/십신육친원리정리, 내격이외는잡격취급/팔자용신전구월령(八字用神專求月令)/사흉신=살상겁인殺傷劫刃(적천수:살상겁효殺傷劫梟)/유정무정(有情無情)은 배우(配偶)와 불배우(不配偶)의 관계
	임철초	(任鐵樵1773~), 임철초가 해설 편주(編註)한 『적천수징의』를 서낙오가 증주(增註)하여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 용희기구한(用喜忌仇閑)의 한신(閑神)개념사용, 훗날 무용론주장하면서 나온 것이 맹파명리, 종이명의 현공풍수 창시자에 영향
	원수산	(袁樹珊1881~1968), 『명리탐원(命理探原)』, 계의신결(稽疑神訣) 쌍생명론(雙生命論), 쌍둥이 사주에 신강은 동생이 잘살고, 신약하면 형이 잘살며, 중화를 이루면 형제가 비슷, 진소암의 『적천수집요』를 임철초가 증주(增註)하고 원수산이 찬집(撰輯)간행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靑	서낙오	(徐樂吾1886~1948), 임철초 편주, 서낙오 증주의 『적천수징의(適天隨徵義)』, 『적천수』의 해설서 『적천수보주(適天髓補註)』, 『난강망』을 편집주석한 『궁통보감(窮通寶鑑)』, 궁통보감을 증보한 『조화원약(造化元鑰)』, 『자평수언(子平粹言)』을 통해 억부/통관/병약/조후/전왕용신의 5용신정법을 확립,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評柱)』에서 십이운성 대신 왕상휴수사를 사용할 것을 주장, 『명리심원(命理深原)』에서 십이운성 동생동사(同生同死)
	위천리	(偉千里1911~1988), 『팔자제요(八字提要)』, 갑일(甲日)인월(寅月)부터 계일(癸日) 축월(丑月)까지 120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설명한 사전식의 실용명리서, 『명학강의(命學講義)』, 『고고집(呱呱集)』, 진소암의 명리약언을 교정주석한 『정선명리약언(精選命理約言)』
中國	하건충	(何建忠), 타이완, 『팔자심리학(八字心理學)』, 십성을 성격 및 적성검사에 접목
	반자단	(潘子端), 『명학신의(命學新義)』, 심리학에 명리학 접목
韓國	박재완	(朴在琬/도계陶溪1908~1992), 『명리요강(命理要綱)』-위천리의 『명학강의』를 바탕으로 실전사례 수록 저술, 『명리사전(命理辭典)』-위천리의 『팔자제요』를 바탕으로 일지론을 첨가하여 저술
	이석영	(李錫暎/자강自疆1920~1983), 『사주첩경(四柱捷徑)』-사주임상서(1969)로서 일반신살과 12신살 소개, 『추명가(推命歌)』, 한국역리학원 설립, 구호만인(口呼萬人)선생
日本	아부태산	(阿部泰山아베타이잔/1888~1969), 『아부태산전집(阿部泰山全集)』, 『사주추명학전집(四柱推命學全集)』
	고목승	(高木乘다카키쵸),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좌등육룡	(佐藤六龍사토로쿠류), 『자평일득(子平一得)』
	화천종장	(和泉宗章이즈미소쵸), 『천중살입문(天中殺入門)』
	삼목소산	(三木照山미키쇼잔), 『사주추명의완전독습(四柱推命の完全獨習)』

2장 명리학

1. 명리학의 개념

명리학은 역학 중에서도 인문역학에 속하는 역의 하위 개념으로서,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정치(精緻)한 학문이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수시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려는 사회과학 이론체계로서 선악(善惡)을 다루는 도덕론(道德論)이 아니라 길흉(吉凶)을 다루는 운명론(運命論)이다. 명리학을 중국(대만)에서는 산명학(算命學)이라고 하며, 반면 일본은 추명학(推命學)이라고도 한다.

명리학은 윤리도덕을 배제한 단순히 운명론적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철학(philosophy)과 종교(宗教)적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노정한다. 가령 철학(哲學)은 변함없는 진리를 논점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종교(宗教)는 선행을 바탕으로 기복(祈福)을 논점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운명론을 재단하면 웃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金正恩)이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착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종교가 되었든 명리학이 되었든 논리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리학은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받게 되는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와 시공간의 행운(行運)에 따라 결정(命)되고 변화(運)하는 운명(運命)의 이치를 이론적(theory)으로 간명(看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명리학과 운명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접하는 첫 호흡(呼吸)을 통하여 출생 연월일시가 정해진다. 이는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존재의 바코드(Bar-Code)로서 선천적인 체(體)의 명(命)이 확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물론 나(我)는 자의와 관계없이 수동적 출생이라는 명(命)에 놓이지만 그렇다고 체명(體命)이 변화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명(命)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며 선택권리가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체명(體命)에 굴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용(用)의 운(運)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운(運)은 행운(行運)이라는 이름하에 체명(體命)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하여 명(命)의 정체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운(運)은 후천적이고 유동적이며 나름 선택권리가 있는 용운(用運)으로서 변화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운명(運命)의 장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靜)한 명(命)에 동(動)한 운(運)이 부딪힐 때 체용(體用)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체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불가항력적 현상을 운명(運命)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운명은 체명(體命)과 용운(用運)의 합치 현상을 통하여 발생하는 운명적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자체만을 보고 좋고 나쁨을 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운명의 성패득실(成敗得失)에 따른 길흉(吉凶)은 명운(命運)을 동시에 보아야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 운(運) = 후천적, 유동적, 선택가능, 때(時), 용(用)
- ▷ 명(命) = 선천적, 고정적, 선택불가, 나(我), 체(體)

3. 명리학 고찰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된 내용은 인문역학의 지류에 있는 명리학으로서 보다 엄밀한 명칭은 자평명리학(子平明理學)이다. 자평명리학은 송(宋)대의 서자평(徐子平)이 쓴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사주팔자 분석에 일간을 기준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당사주와 확연한 차이를 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리학은 자평명리학을 의미한다.

반면 당(唐)나라의 이허중(李虛中)은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서 연주(年柱)를 기준하여 연간(年干)을 록(祿), 연지(年支)를 명(命), 연주의 납음(納音)을 신(身)으로 한 납음 위주의 태월일시(胎月日時) 간명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송(宋)대 서자평의 일간을 기준한 간명법과 상치(相馳)하는 내용이지만, 서자평 이전까지는 연주 위주의 록명신 체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주 위주의 간명법은 오늘날까지 당사주(唐四柱)라는 명칭으로 회자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시대적 흐름이 춘추전국시대·진나라·한나라·당나라·송나라·명나라 순이지만 이허중은 당나라 시대 사람이고, 서자평은 송나라 시대 사람이다. 이허중은 연주를 기준하여 사주팔자를 분석했고, 서자평은 일간을 기준하여 분석했다. 이허중의 분석 방법을 당사주라고 하며, 서자평의 방법을 자평명리학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간 중심의 명리학은 서자평의 논리를 채용하고 있음이다.

그렇다고 서자평의 일간기준 분석법이 온전하게 독창적 내용물만은 아닌 듯하다. 이미 춘추전국시대 귀곡자(鬼谷子)의 『귀곡자찬(鬼谷子撰)』과 낙록자(洛豫子)의 『소식부(消息賦)』에서는 일주를 간명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는 흔적이 이허중의 저서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허중은 『귀곡자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抵年爲本則日爲主 月爲使則時爲輔 年爲日之本日爲命主
如君之有臣 父之有子 夫之有歸 國之有王 是胎月生

『時爲主本之扶援 欲得以序相承順也』

“연(年)은 본(本)이 되고 일(日)은 주(主)가 되며, 월(月)을 사용하되 시(時)는 보조한다.

연(年)은 일(日)의 본(本)이 되며 일(日)은 명주(命主)가 된다.”

이렇듯 연주와 일주가 사주팔자의 본주(本主)가 되어 사주간명의 중요 기준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허중은 연주의 본(本)을, 서자평은 일주의 주(主)를 기준하여 사주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자평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싶었을 터이니, 당연히 이허중과 다른 관점에서 일간의 주(主)를 지목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자평의 자평명리학이 오늘날 이법(理法)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이다. 물론 당사주 또한 신살류(神殺類)와 더불어 사주추명의 중요한 기법(技法)의 기법(氣法)으로 활용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4. 명리학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易)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학문적 분류법도 모른 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설령 안다고 해도 역학고서(易學古書)의 체계적 접근보다는 간접정보 또는 간헐적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오래 배웠다고는 해도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까 명리학과 역학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해프닝도 벌어지곤 한다. 빨리 무지(無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사주를 비롯하여 자평명리학을 명리학이라고 한다. 다만 당나라 때까지는 연주 위주로 사주를 간명했던 반면, 이후 송나라 때부터는 일주의 일간을 기준하여 사주를 간명했기 때문에 상대적 관점에서 당나라 명리학 체계를 고법(古法), 송나라 명리학 체계를 신법(新法)이라고 한다. 같은 명리학이지만 당나라 사주체계를 당사주, 송나라 사주체계를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평은 효시(嚆矢)가 되는 서자평(徐子平)의 이름을 붙여 그리 부를 뿐이다.

쉽게 설명하면 명리학은 당사주의 고법과 송대의 자평명리학인 신법으로 나뉘는데, 신살류로 분류되는 십이운성과 공망 등이 고법에 해당하고 용신 및 격국 등이 신법에 해당한다. 고법(古法)을 기법(氣法)이라고 하는 반면 신법(新法)을 이법(理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평명리학의 신법이 오행체계로서 생극제화를 논한다면, 신살류의 고법은 음양체계로서 간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법의 자평명리학과 고법의 당사주가 완전히 다른 체계는 아니다. 같은 사주팔자를 보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같은 종단이면서도 종파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신법의 자평명리학만을 공부한 사람은 고법을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할 사술쯤으로 규정하고, 고법의 당사주만을 익힌 사람은 그들의 논리가 허접하다고 편견을 주기도 한다.

<명리학의 시대적 구분>

명 리 학	
당(唐)	송(宋)
고법(古法)	신법(新法)
기법(氣法)	이법(理法)
음양학(陰陽學)	오행학(五行學)
신살(神殺)	자평학(子平學)
신살명리학	자평명리학
이허중(李虛中)	서자평(徐子平)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연해자평(淵海子平)』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행체계의 자평명리학만으로 추명하면 간명이 두루뭉술해지기 십상이다. 예리한 분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필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법체계이다. 우리가 은연중 쓰는 신살들이 그것이다. 고법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신살이 고법인 줄도 모르고 자평명리학에 의존하여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다. 한

마디로 가소로운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뿌리 없는 학문이 어디 있겠는가. 자평명리학의 원류는 음양을 체계로 하는 고법이다. 그런데도 자평명리학만을 운운하는 것은 온고(溫故)를 무시한 채 지신(知新)만 주장하는 과문의 소치일 뿐이다.

명리학의 학습순서는 먼저 오행의 자평명리학을 배우고, 그 다음 음양 체계인 고법의 신살명리학을 학습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합충형해파를 습득하고, 마지막으로 ‘체운의 시기분석과 용운의 실행분석’을 학습해야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5. 명리학 학습체계

어떤 사람이 2001년 양력 1월 1일 낮 12시에 태어났다고 가정한다. 이를 사주팔자(四柱八字)체계로 전환하면 기묘(己卯)년·병자(丙子)월·무오(戊午)일·무오(戊午)시의 이른바 존재의 바코드(Bar-Code)가 만들어지게 된다. 개인의 운명과 관련한 궁금증이 이 사주팔자 도식에 숨어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주팔자 분석에 앞서 특정한 기호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특성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음양오행은 물론 천간지지, 지장간, 십성, 용신, 격국 등의 난해한 용어들을 비롯하여 한난조습(寒暖燥濕)의 계절적 요인과 생극제화(生剋制化)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술기(術技)가 더해짐에 따라 각종의 신살 및 자의형상(字意形象) 등도 익혀야 하므로 간단치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다”는 대해일적(大海一滴)의 말처럼 순서대로 배우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명리학은 저절로 되는 학문이 아니다. 순서에 입각하여 외울 것은 외워야 간명의 현장에서 위용을 발휘한다. 처음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묘미를 터득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아래의 학습체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1.1. 12:00 양력, 사주팔자>

시	일	월	연
戊	戊	丙	己
午	午	子	卯

1) 자평명리학 학습체계

- 일간(日干): 무토(戊土)
- 음양(陰陽): 양토(陽土)
- 일간오행(日干五行): 토(土)
- 신강신약(身强身弱): 신강사주
- 지장간(地藏干): 병기정(丙己丁)
- 용신(用神): 수(水) 오행
- 십성(十星): 비견/겁재/식신/상관/편재/정재/편관/정관/편인/정인
- 격국(格局): 정재격(正財格)
- 충(沖): 자오(子午)충
- 형(刑): 자묘(子卯)형
- 병존(竝存): 오오(午午) 병존
- 행운(行運): 대운(大運), 연운(年運), 월운(月運), 일운(日運), 시운(時運)

2) 신살명리학 학습체계

- 일반신살(一般神殺): 음양(陰陽), 육수(六秀), 장군(將軍), 효신(梟神), 구추방해(九醜妨害), 일인(日刃)
- 12성(12星): 천복성(天福星), 오복성(午福星)
- 12신살(12神殺): 겁재천지연월망장반역육화

(劫災天地年月亡將攀驛六華)

•12운성(12運星): 절태양장목관건재쇠병사묘

(絶胎養長沐官建帝衰病死墓)

•공망(空亡): 자축(子丑)

•자의형상(字意形象): 노을과 햇불(삼명통회), 활화산, 질그릇

•학문(學問): 학과

•업상(業象): 직업

•건강(健康): 질병

•택일(擇日): 출산, 혼인, 이사

•궁합(宮合): 인연법